

추석 맞이 직거래 장터 '서울장터' 개최

내일부터 18일까지 120개 시·군 1100여개 최대 30% 저렴 장바구니·종이백 등 친환경장터 운영·택배 서비스 지원

서울시는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전국 각지에서 올라 온 명품 농수특산물을 최대 3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직거래 장터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2018 추석 농수특산물 서울장터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 운영되며, 각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을 시중보다 10~3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서울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생산 농가의 판매품목과 가격등을 서울 시민들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행사 후에도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매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16일 일요일에는 전라남도

남도종류와 충청북도 '각살이페 공연 등 참여시도에서 준비한 '내 고장 문화예술의 날'이 운영된다.

특히 이번 장터에서는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모든 판매부스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장터에서 구입한 물건을 현장에서 바로 원하는 곳으로 배송할 수 있는 택배서비스도 운영한다.

시는 친환경 장터가 되기 위해서

도 힘쓰고 있다. 1회용품과 비닐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기 위해 시민들이 손수 장바구니를 갖고 행사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서울장터는 추석을 앞두고 농부들이 올해 그 무더운 폭염을 참으며 이겨내고 생산한 우리 농산물을 직접 생산농가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이며 착한 장터"라며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으며 도시와 농촌이 소통과 교류를 통해 더불어 발전하는 추제의 장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인천공항, 메르스 확산 방지 총력

위기 경보단계 '주의'로 격상

인천공항공사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방지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공사는 이날 오전 정례 미디어브리핑을 갖고 지난 8일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대책반을 구성해 확산방지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의 경보는 해외에서 신종감염병의 국내로 유입됐을 때 발표되며 이 경우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이에 공사는 중동발 항공편에 대해 지정 주기장을 운영하고 중동을 방문했던 여객에 대해서는 전수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중동발 인천공항행 정기편은 EK322(두바이), KE952(두바이), EY876(아부다비), QR888(도하) 등 모두 4편으로 이 여객기들은 공

사 지정한 인천공항 1터미널 입국장 10번과 32번, 2터미널 252번 주기장을 사용해야 한다. 해당 여객기를 이용하는 여객은 1097명에 달한다.

이곳에 내리는 여객은 검역원의 체온검사와 열화상카메라 등의 장비로 전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만약 발열을 동반한 기침, 가래, 숨가쁨,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검역원에 즉시 알려야 한다.

공사는 메르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공항 내 입국심사대, 화장실, 유아유게실 등과 같은 다중 여객이용시설과 여객들이 직접 접촉하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카트 등의 시설물에 소독을 실시하며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희정 인천공항공사 홍보실장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여객이 접촉하는 시설물을 세척하고, 여객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환기시설 가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

떠오르는 서울관광상품 '오래가게'...서북권 26곳 추가



서울시는 관광객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오래가게'를 서북권에도 추가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종로·을지로 일대 39곳에 이어 올해 서북권 26곳이 오래가게로 선정됐다.

26곳은 ▲용산구 6개소(개미슈퍼, 김용안 과자점, 용산방앗간, 원삼탕, 한신용기, 포린북스토어) ▲

마포구 8개소(경기떡집, 굴벗사점, 다락, 사하라, 신울림소극장, 성우이용원, 코끼리분식, 호미화방) ▲ 서대문구 10개소(가미분식, 독다방, 미도사진관, 복지탁구장, 연희사진관, 춘추사, 태광문짜, 피터팬 1978, 흥익문고, 웨드라) ▲은평구 2개소(불광대장간, 형제대장간)다.

오래가게의 기준은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과거의 재화가 불거

리가 남아있고 동일한 서비스가 이어지는 개업 후 30년 이상 운영 중인 가게 또는 2대 이상 대물림된 가게다. 생활문화 분야(방앗간, 책방, 이발소 등), 전통공예 분야(철기, 유기, 공방 등) 가게가 대상이다.

시는 올해 오래가게 발굴을 위

작년 종로·을지로...올해 서북권 4개구 서점·수퍼·사진관 등 주변 관광지·맛집·산책로 엮은 3~4개 코스 개발 추진키로

해 자료조사를 통해 1208개소 기초 자료를 수집했고 시민과 자치구, 전문가 추천 등을 통해 120개소를 추가 발굴했다.

이를 토대로 오래가게 기준 부합 여부 확인, 폐업 여부 확인, 전문가 자문을 거쳐 108개소를 선별했다. 이어 문화해설사, 외국인, 대학생 등 현장방문·평가를 거쳐 60곳을 추천받은 후 여행전문가, 도시역사학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의 평가, 현장검증을 통해 40곳

을 종합 평가했다. 전문가단 2차 검증과 해당 가게의 동의를 받은 26곳이 오래가게로 확정됐다.

시는 자유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서북권 오래가게 26곳 주변의 관광지, 오래된 맛집, 산책로 등을 엮어 3~4개 구간으로 개발한다. 서울스토리 온라인 플랫폼(www.seoulstory.kr), 비짓서울 누리집 (http://www.visitseoul.net/)을 통해 국내외로 홍보한다.

주요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오래가게는 일본의 시니세(老舗)나 유럽의 백년가게처럼 서울만의 개성을 일리고 세계의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하는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며 "자유 여행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화려한 서울 도시 이면에 간직한 오래가게만의 정서와 매력을 꾸준히 알려 서울만의 개성을 갖춘 색다른 서울 체험 콘텐츠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이재명 지사, 추석 민생소통 행보... 17일 수원 전통시장 방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석을 맞아 오는 17일 오후 수원 영동시장과 못골종합시장을 찾아 민생소통 행보에 나선다.

이 지사의 이번 전통시장 방문은 대형유통기업의 경영확장과 경기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토대로 현장 밀착형 전통시장 활성화 정

책'을 수립하는데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시장 구석구석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며 명절 장바구니 물가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상인 및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실제 지역 서민경제 상황을 가늠해 볼 계획이다.

이어 시장 내 상인회 강당에서 이종환 경기도 상인연합회장, 경기

남부권역 상인회장 등 80여명의 상인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건의 및 애로사항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이 지사는 이 자리를 통해 ▲경기도 전역 지역화폐 도입·확대, ▲(가칭)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경기도형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상생발전형 공유머릿 및 골목

형 시장 중점 육성,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및 경영자금 확대 등 '민선7기 골목상권 5대 공약'을 설명하고 상인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동참을 당부할 방침이다.

박찬환 경기도 경제실장은 "전통시장은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살림집"이라며 "민선 7기 경기도정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진솔한 대화를 통해 전통시장 살리기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학기 서울 청소년 밀집지역

7곳서 찾아가는 거리상담 실시

서울시는 신학기를 맞아 학업 부담, 진로 등 청소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기 위해 14일 신림역, 수유역, 천호동 로데오거리 등 청소년 밀집지역 7곳에서 '찾아가는 거리상담'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보다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과 후 시간인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이 이뤄지는 7곳은 ▲수유 상신놀이터 ▲전농사거리 마을예술창작소 ▲천호 로데오거리 ▲대치 은마사거리 ▲신림역사 내/포도물 앞 ▲신월동 가로공원 ▲효창공원 역 일이다.

나의 고민을 적은 후 농구대에 던지면서 걱정거리를 훌훌 날려보내는 '마음의 휴지통', 미니 전구에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표

현하기 어려웠던 마음 속 이야기를 해보는 '내 마음의 전구 꾸미기', 내가 느끼는 소중한 행복이 어떤 것인지 적어보는 '포스트의 활동' 등 각 지역마다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MBN·스트레스 검사 등 심리검사를 비롯해 타투 스티커 붙이기, 네일아트하기, 필통·책갈피 만들기 등 놀이를 병행한다. 미니 샌드백을 세계 치며 학업에 지친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다.

찾아가는 거리상담 중 대표적인 활동은 '가정 복귀 지원 및 쉼터 상담'이다. 시는 위기청소년이 전문상담을 통해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거나 관련 기관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청소년쉼터 등에 연계한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창경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